

발행인
출판부

7 월
제 19 호

LWV



문예협회

자신에게 주는 세 가지 선물 “-해”

오늘 웃어주니 “사랑해”

매일 걸어주니 “감사해”

항상 운동하니 “쓸만 해”

하루 사과 하나는 **Doctor** 가 필요 없고,



하루 **Tulsi** 이파리 한 잎은 **Cancer** 가 없고,
 하루 레몬 하나면 똥보가 없으며,
 하루 한 컵의 밀크는 **Bone problem** 이 없고,
 하루 **3L** 의 물은 모든 질병을 예방한다는 말이 있다.

Tulsi

<죽기 전에 좋은 일 한 가지, 무얼할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김 변호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이메일에서는 언제나 쉽게 오타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으레 그분 글은 내용보다 오타 찾는 일이 취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분 호를 ‘오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오타의 달인’이란 뜻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호가 ‘홍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보의 달인’이란 뜻이죠. 영어 이름도 **Hong** 입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지극 정성으로 마을 홍보에 열을 올리다가 운동 부족으로 심장 수술까지 받은 분입니다. (의사 분이 그러니 할 말은 없지만)

본인은 스스로 좋아서 하겠지만, 한인회에서는 이런 사람 왜 상을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의 시간은 금입니다. 누구나 자기 일에 바쁩니다. 암과 투병하시면서도 골프장에서 오래 봉사를 하시는 사람, 비닐봉지를 들고 아침 새벽마다 쓰레기를 줍고 다니기를 수년간 하시고 계시는 사람, 이름도 빛도 없이 숨은 도네이션을 꾸준히



하시는 사람, 갑자기 쓰러지시는 환자분 병원에 단골로 모시고 다니시는 의사분, 자기 돈 쓰면서 탈북민 돕는 사람, 한인 마을 버스 운전자, 성경, 노래, PC 등등 휴가도 못가고 봉사에 앞장서시는 목사 그리고 지도 선생님들, 뭐니 뭐니 해도 숨어서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 알아주어야 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천재적 두뇌를 찾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이걸 척척 풀면 과거시험은 장원, 고등고시는 수석을 할 수 있다. 제한 시간은 1 시간이다.”



고 3 때 졸업을 며칠 앞두고 수학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우리는 학교를 떠나고 말았지요.

그 당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멩이를 놓고 나는 몇 시간을 끙끙거리면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답이 정답인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저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 1 >

여기에 12 개의 공이 있는데 크기, 무게,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12 개 중에서 1 개만 무게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칭(Balance scale-이 쓰는 저울)으로 3 번만 달아서 그 공을 찾아내고 다른 공과 비교하여 무게까지 가볍다, 또는 무겁다고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 천재님들은 의외로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지적인 다양한 경우를 제대로 풀어내시면 합격입니다.

정답자가 나오면 다음 호에 발표하겠습니다.



<이건 좀 쉬운가요?>

<문제 2>

해는 지고 날은 저문데
식인종 3 사람과 백인 3 사람,



이렇게 6 명이 티그리스강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마침 배 한 척이 있는데 2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곧치 아픈 일은 강변 이 쪽이나 저 쪽에서 식인종이 한 사람이라도 많을 경우 백인을 식사합니다.

식인종과 백인이 동수이거나 백인이 한 사람이라도 많을
경우에만 백인은 살아 남지요.

어떻게 하면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너갈까요?

<이건 금방 답이 보입니까?>

<문제 3>

이 문제를 헤매면 당분간 장사를 접고 잠시 기도원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개살구는 빛은 좋은데 맛이 땡입니다.

개살구 같은 사람이 철수네 식품점에 왔습니다.



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와서
8 천 원어치 식품을 샀습니다.
철수 엄마가 거스름돈 2 천
원을 주려고 지갑을 보니 마침
잔돈이
없어서 이웃 가게 영희네

집에서 그 만 원짜리를 바꾸어 와서
잔돈 2 천 원을 내주었습니다.

개살구는 좋아하며 식품과 잔돈을 챙겨서 유유히 떠났지요.
10 분 후 영희 엄마가 쫓아와서 아까 철수 엄마가 가지고 온
만 원짜리는 위조지폐라며 다른 만 원짜리로 받아갔습니다.
그럼, 철수 엄마는 물건값이랑 합해서 모두 얼마 손해를
보았나요?

풀밭 언덕 위에 긴 의자가 놓였네.
하필이면 그곳에 의자가 있을까?

‘파 3’ 에는 어느 곳이나 의자가 있지.
웬일로 골라서 나무를 맞추고
새도 아닌데 모래 밭에 하얀 알을 깔까?
그래도 나는 좀 낫겠지, 웃음이 나오겠지만
“혹시나가 역시나”

다른 사람 앉아서 편히 기다리며
세상 일 그런 거라 구경하란 거지.



그런데 이렇게 좋을 줄이야.
언덕길 노부부가 쉬어가는 곳.
한 손에 지팡이, 또 한 손 꼭 잡고
석양 무렵 명상에 잠기는 안식처라지.

내려다 보이는 숲속 그린은

왜 동그라미 그렸을까?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지.

골퍼는 한낮에 웃음을 흘리고
부부는 석양에 감사를 남기는
라구나우즈 여름은 별 헤는 밤이다.

<문예협회 집필자님들 존경합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글쓰기는 담 너머 이웃집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붓가는대로 쓰는 수필은 물론 시를 쓰고 글이 바로 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글 쓰시느라고 땀 좀 흘리셨지요?

무려 70편이 넘는 글을 **USB**에 담아서 인쇄소에 넘기니 <미국 어디에 이런 마을이 있겠느냐?>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쯤 되면 꿈 많은 문학, 소년 소녀들이 사는 동네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나이는 <아직도 20-30대 청춘입니다>

생각이 젊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푸른 동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Silver Town>이 아닙니다. <Evergreen Village>라고 불러야겠습니다.

xxxxxx

글이란 영감(**inspiration**)이 떠오를 때 쓰거나 쓰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생길 때 단숨에 써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소재나 **motive**가 있어야겠지요.

글재간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글 쓰신 분 중에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난 생전 글이란 걸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별것 아니라고 덤볐는데 세상에 글쓰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아, 쓰고 지우다가 그만 포기해버렸습니다.”

“글 쓴다는 사람들 자기 자랑만 하는 걸 도대체 누가 읽겠습니까?”

“그 흔한 인터넷 글도 다 못 읽는데 또 무슨 서투른 글까지 쓰라고요?”

“남에게 보이는 글 난 싫어요, 나만 보는 일기가 더 좋아요.”

“뭐, 쪼그리고 앉아서 글 쓰라고요? 그 시간에 골프공 한 번 더 때리는 게 낫지요.”

글 안 쓰는 변명이나 핑계도 가지각색이지만 그런대로 수궁도 가는 말입니다.

글을 거절하는 방법은 “난 글 읽기는 참 좋아하는 데 쓰지는 못해요.”

“이번에는 바빠서 다음번에 쓸게요.” 그래도 글을 긍정해 주는 말이 듣기는 좋군요.

XXXXXX

라구나우즈 문예협회

***지난 2 일동안 박승원 사진 작가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진을 아직 찍지 못하신 분은 개인 사진을

편집부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도 라구나우즈 문예지 출판을 위하여 후원금과 정성을 함께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KAC(한인회)로 pay 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tax**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31 현재까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존칭 생략)

임동호	최인숙	송두빈
이규조	양정애	박길수
손기용	고영철	김홍식
이종숙	강홍식	이재운
윤종식	윤경순	이원문
박제송	고영주	고정자
임흥순	권영조	이시효
김봉현	주 강	황민자
김웅민	한순고	이지춘
이병소	이정근	민보현
김소향	이명하	이종민
김성웅	이강민	김용재
고석원	조영익	박미자

보내실 곳

**Make check payable to: Lee, Kuem Ja or K A C
Lee, Kuem Ja (이금자)
5511-1F Paseo Del Lago W
Laguna Woods, CA 92637**

***이금자 (614-638-2581) kuemjlee@gmail.com**

***고영주 (310-970-2707) youngjko@hotmail.com**

오호! 통재라.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의 친구요, 선배이신 윤민제 장로님이



바로 어제 주일 소천하시다니——

“아침 이슬 같은 인생, 인생이 이런 건가요?”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싶다.

분명 나흘 전 클럽 하우스 1에 사진 촬영하러 오셔서 손을 붙잡고 환담을 하였건만, 귀를 의심할 정도로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실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 7월 26일 “고 형, 내가 보낸 그 글 완전히 고쳤어!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왔다. “바쁘신데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더 고치지 않을게요.”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마지막 작별의 인사가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인데 당장 본인은 과거 인물이 되었다.

유명하신 작곡가요, 지휘자이신 장로님은 소리를 듣는 귀가 생명임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손에 전자 보조기를 별도로 휴대할 정도로 귀가 먹고

말았지만 경청하시려고 애를 쓰신 모습 눈에 선하다. 사람들은 운 베토벤이라 칭했다. 안타깝게 말년에 유일한 소망마저 앗아간 운명의 신은 가혹했다. 한동안 절망의 늪에서 재기하여 글쓰기로 취미 생활을 바꾸었다. 인생 역전과 반전이 시작되었다. 열심히 글을 쓰고 배우면서 많은 습작을 발표한 불굴과 투지의 정력가였다. 그 결과 웬만한 작가를 능가할 만큼 글솜씨는 일취월장 발전을 거듭하여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 나는 장로님의 글을 재미있게 읽으며 감상하는 독자가 되었다. 글 한자, 토씨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려 깊은 집필자였다. 열성을 다해 쓴 <옛장수와 하나님>은 금년 발간될 수필집에 나올 예정이다. 대신 여기 최근 작 <노년의 부부>를 소개한다.

<노년의 부부>

윤민제

가끔 자리를 함께하는 그룹 친구들 몇몇이 모여 앉아서 한담을 하는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조크를 했다. 노년의 부부 이야기였는데 기술하면 이렇다.

여고동창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노친네가 시무룩해 있어서 영감이 물었다. 다른 동창생들은 모두 고급차를 타고 왔더냐 했더니 입을 꼭 담은 채 머리만 가로 흔든다. 아니면 명품 옷으로 몸치장을 하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들 왔더냐고 해도 또 눈을 허공에 둔 채 고개를 젓는다. 뭐, 얼굴에 정형수술들을 해서 모두가 당신보다 예쁘고 젊어 보이더냐고 했지만 역시 입술을 삐죽거리며 도리질한다.



그럼 도대체 왜 그리 시무룩해 있느냐니까 노친네가 심통을 부리며, “다른 동창생들은 모두 영감이 없는데 나만 있잖아요.” 했다는 스토리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노친네의 대답에 배꼽을 잡았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심각해서 그게 말이 된다면 마침 오늘 화제에 올리려고 어디 주간지나 잡지에서 오려온 듯한 종이 한 장을 내보여주었다. 최근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년의 여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통계자료였는데, 늙은 여자의 71.8%가 늙은 남편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다.

원래 통계라는 게 전적으로 믿을 만한 건 아니다. 거짓말이나 장난으로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설문을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문 받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가령 영감과 된통 싸웠거나, 영감이 교통순경에게 한 달 새에 세 번째 딱지를 떼고 들어왔거나, 노친네가 몰래 꾸쳐놓은 돈을 훔쳐내어 들고 나가 도박을 해서 몽땅 털렸거나, 얼추 그런 때 설문에 응답할 경우다. 하지만 70%가 넘는 그 압도적인 숫자에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에너리를 해서 받아들인다 해도 최소한 50%는 넘을 것 아닌가. 하긴 요즘 한국에서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지른다는 말도 있으니 그 통계가 맞을 것도 같다.

언제부터 이런 풍조가 생겼을까?

옛 속담에 “쥐 못 잡는 고양이와 돈 못 버는 서방은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중간하게 젊은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업신여김을 받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사내들은 그런 미망인에게 함부로 반말질을 하고 야한 농담을 거리낌 없이 지껄이고 어떻게 한 번 해보려고 집적거리기도 했다. 오늘날의 젊은 과부를 대하는 남자들의 태도도 별반 달라진 건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여자의 반응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옛날 미망인은 홀로 된 것만도 원통한데 못 사내들이 자기를 깔보고 막말을 해대고 추근거리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수치스러웠지만, 지금의



독신녀는 남자에게 똑같이 말을 놓고 진한 농담에 맞받아서 응수할 만큼 당당하다. 또 옛날의 미망인은 청상과부일지라도 여생을 수절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오늘날의 독신녀는 맘대로 바람을 피울 특권이 있다며 아무 남자건 가릴 것 없이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내세운다.

그러니 늙어서 경제력도 없는 주제에 정력조차 딸리면서 가부장적인 권위만 내세우며 간족거리는 남편이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만도 할 터이다. 더구나 여자의 사회적 진출이 보편화해서 경제력도 생겼겠다 기족을 일도 없다. 게다가 서양영화에서 남편이 아내를 여왕 모시듯 섬기는 모습을 슬하게 본 탓에 제왕처럼 군림하는 구세대 한국 남편에게 싫증이 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겠다. 이런 사실들이 늙어서는 늙은 남편을 부담스러워하는 여자가 70%도 넘는 실마리가 되는 모양이다.

어쨌든 그건 한국의 통계고, 이곳 미국에 살고 있는 여자들 중에는, 남편과 사별하고 잠자리가 허전해서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여자도 있는가 하면, 먼저 간 남편이 그리워서 그 애타는 심정을 시로 표현하여 시집을 낸 여자도 있고, 일주일에 두어 번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여자를 내 주변에서 본다.

문득 내 아내의 속셈은 어떨까? 머리가 그리로 돌아간다.

한때 유행하던 말로, 은퇴한 남편을 일식(一食)이니 이식이니 삼식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른다고 했다.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몇 끼나 얻어먹느냐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었다. 숫자가 하나둘 올라갈수록 괘시

잠이었다. 나는 그중 가장 존대 받을 만한 영식(零食)이다. 저녁 한 끼는 아내가 해줘서 먹으니 일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침은 내가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면 영식이 되는 셈이다. 아내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느라 얼굴에 미술 작업을 하는 동안 신선한 과일카테일과 내 주특기인 계란요리를 만들어서 아내 앞에 진상한다. 점심은 물론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끔 저녁을 아내가 직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내가



마련할 때도 있다. 이제 요리 솜씨도 아내의 수준을 거의 따라잡아 간다. 머지않아 아내가 삼식이 될 판이다. 끼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내

몫이다. 장 봐오는 것도 내 잡이고.

가장과 주부의 역할이 뒤바뀌어서 우습긴 하지만 웃을 일만도 아니다.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아내는 한국에서의 그 말세적인 71.8%에 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떠도는 말에, 늙은 남편을 부담스러워하는 여자들은 외출할 때 남편이 따라나서면 흑을 달고 다니듯 해서 질색을 한단다. 하지만 아내는 어디를 가든 함께 가자고 한다.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던 나는 속으론 쾌재를 부르면서도 못 견디는 척 따라나선다. 심지어는 미장원에 가면서도 함께 가자지만 그것만은 사양한다. 역으로, 간혹 주말에 내가 어디를 함께 가자고 하면 얼른 옷을 갈아입는다. 기꺼이 동행하려는 듯하지만 마지못해서 따르는 기색이 짙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늘 피곤이 쌓여있으니까.

아내는 늙은 지금도 예전이나 다름없이 한결같이 상냥하게 굴며 무엇이든 나를 보살펴주려고 애쓴다. 누가 뭐래도 내 아내는 절대로 71.8%에 들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그래도 아직 기력이 있을 때 아내를 전보다 더 많이 도와주고 더 잘해주어야겠다고 다짐한다. 나중이라도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려면.